

# 화염병·시너 '지뢰밭'에 특공대 투입

## '용산 참사' 무리한 진압이 대형 비극 불러

경찰이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농성자들이 시너 통을 쌓아두고 화염병을 던지는 극한 상황에서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인명피해가 발생, 과잉진압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참사 순간=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대교변 재개발지역 4층짜리 건물에서 잔발부터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2분 10여대 기동차를 이용, 경찰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건물 옥상으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진압이 시작된 지 40여 분만인 7시24분께 철거민들이 옥상에 설치한 5m 높이의 망루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면서 옥상 전체로 번졌고, 망루는 1분도 안돼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농성자들은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시너병 70여통을 쌓아놓았는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이 시너통에 한꺼번에 옮겨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농성자들이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참사 원인을 밝혔다.

○과잉진압 '논란'=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6명의 인명 피해가 난 것에 대해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거민들이 인화물질인 70여 개의 시너 통을 쌓아두고 연방 화염병을 던지는데는 한꺼번에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 벽을 맞고 다시 옥상 안으로 떨어져 옥상 곳곳에서 작은 불길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진압 작전을 시작하기 전 철거주변에 농성자와 특공대의 추락에 대비한 매트리스도 설치하지 않는



20일 새벽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이 붙어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 안이하게 대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록 철거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긴 했지만 점거한 시간이

25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파트 베란다 추락 조심"

## 광주·전남 사망 사고 잇따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3층에 거주하는 A(5)군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너무 낮은 베란다 난간 때문에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A군이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 높이는 120cm, 난간을 받치는 시멘트 구조물 높이가 32cm였다. A군이 시멘트 구조물을 밟고 일어설 경우 실제 높이는 88cm에 불과한 셈이다. 경찰은 키가 110cm인 A군이 시멘트 구조물을 밟고 있다가 베란다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난간 높이를 바닥 마감선에서 1.2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가 베란다 확장공사 과정에서 난간 아래쪽에 구조물을 쌓거나 구조물을 놓으면 아동들은 항상 추락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27일에는 여수에서 한 여성이 베란다에 걸터앉아 있다 아래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건축법규 보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한 아동과 성인은 전국적으로 6명나 됐으며, 그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섬으로 팔려가요 탈출 도와주세요"

## 채팅남 300명에 돈 뜯은 부부 검거

"섬으로 팔려가요, 제발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도와달라'며 접근해 무려 300여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뜯어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0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갑금돼 있으니 도와달라'고 속인 뒤 교통비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고(33·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박모(2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을 따르면 이 부부는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 다방에서 일하고 있다. 며칠 후 안도로 팔려간

다. 탈출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빌려주면 (당신을) 찾아 가겠다"고 속여 7천200만원을 받아 채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가짜 사연'을 믿고 지난 7일 이모(24)씨가 30만원을 보내는 등 돈을 송금한 남성이 32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가운데 일부는 3~4번씩 돈을 보내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부부가 1년이 넘도록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보내준 남자들이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부인 강간" 유죄 남편 자살

## 부사서 40대 목매

국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43)씨가 부사 남구 자살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사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씨가 부엌에서 전기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서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나원침 (7709)



다 좋은 건국·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자택 및 상업용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지사 : 06) 337-0571

빨기 귀찮아 버린 신발 명품일 줄이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 힘든 여중생을 유인해 협박한 뒤 현금과 신발 등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0일 여중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광모(16·고1 중퇴)양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광양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D도호 앞길에서 운모(12)양 등 2명을 인근 골목길로 유인해 운양의 신발(20만원 상당)과 현금 2만4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광양은 갈치 금품 액이 20만원이 넘는다는 경찰조사내용에 대해 "빼앗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 빨기 귀찮아 버렸는데 그렇게 비싼 줄랐다"며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철거민 강력 반발 왜? "현 보상비로는 생계·주거 막막"

철거민 4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은 세입자들의 이전 비용 규도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

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 세입자는 철거를 당할 때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천400만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

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 반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는 "조합이 지급하는 보

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도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개업 7주년 기념세일(최상품 39만원 균일가) 한달간!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특수가발대어

● 영화기법을 이용한 Front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KBS SBS MBC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3mm 마이모로 가발 타사제품 보상 판매 최신 제품으로!

"이번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요도 가발 에드리세요"

경력 20년 노하우 주 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금호생명 마이모 (남성선 409호) 동성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석동	151/213	595400원	3953800원	2층/월/외곽지역	정신성년	200/44	8840만	4950만	도로/스타일/연립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학동	194/220	1194500원	6180000원	4층/신도시	호정동	39/39	9800만	6880만	중형/연립연립	우산동	대림/구/1인	1층	35	195000원	196400원
공동	48/233	892800원	4988000원	병립/대형/신도시	금호동	89/35	8820만	6170만	3인/1인	금호동	한국	14층	24	90000원	63000원
오치동	50/52	1945120원	9030만	상/신도시/신도시	중동동	42/48	9520만	6880만	중형/구/연립	안산동	호반	2층	24	60000원	42000원
용산동	362/994	41940000원	21920000원	금/보/연/대형/신도시	진월동	40/46	8180만	4580만	구/비/대/연립	안산동	한국	20층	33	80000원	56000원
신안동	110/257	6941000원	3950000원	4층/신도시	우산동	48/40	1922000만	6840만	우산/신도시	소촌동	이/스/신도시	12층	36	1940000원	98000원
광복동	612/113	19286800원	19286800원	주/신도시	문흥동	54/60	1957200만	9360만	우산/신도시	방문동	도미치	7층	29	68000원	47600원
중앙동	98/43	68000원	47600원	캐나다/부/연립	오치동	112/45	2929800만	1928088만	한/신도시	주월동	호반/차	3층	38	2970000원	2978000원
					영랑동	125/26	3760만	2400만	신/신도시	마일동	이/스/신도시	1층	35	1970000원	98000원
					월동동	33/40	9964만	7000만	용/주/신도시	문흥동	금호	5층	42	1976000원	1923200원
					거림동	95/96	1957300만	7500만	개/보/구/연립						
					내곡동	200/54	4850만	2720만	본/신도시						
					중동동	48/53	1949200만	6875만	복/구/연립						
▶근린주택				▶다세대				▶다세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원곡동	119/7	11920000원	3921200만	2층/신도시/1층	운암동	44.9	2억	1941200만	무등/스/신도시/2층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원곡동	9.9	5700만	3992만	신도시/1층	곡성동	20.4	2800만	1960만	대/연립/주/신도시	신안동	연립	528	3665만	2565만	연/신도시/신도시
신안동	9.4	8000만	3840만	1층/신도시/신도시	공정동	57.1	1960000만	8960만	대/연립/신도시	연안동	연립	2283	6868만	3850만	연/신도시/신도시
마일동	11	8200만	2222만	신/신도시/신도시	원곡동	14.8	4000만	2240만	신/신도시/신도시	원곡동	연립	887	2053만	1440만	신/신도시/신도시
중앙동	60.7	2992000만	2944000만	금/보/연/대형/신도시	원곡동	8.7	2700만	1890만	개/보/신도시	모기동	대지	179	4618만	3323만	개/신도시/신도시
학동	47.1	1950000만	6720만	2층/신도시/신도시	내곡동	18	2400만	1680만	신/신도시/신도시	정동동	대지	1475	3460만	2442만	개/신도시/신도시
월곡동	10.1	19285000만	1948400만	1층/신도시/신도시	호산동	17.8	3000만	2100만	대/연립/2층	지석동	연립	1185	3460만	2442만	개/신도시/신도시
▶다세대(월/숙)숙박시설				▶오피스텔				▶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안동	80/121	3971400만	2948000만	3층/12/구/신도시/신도시	구동	9.2	4300만	1830만	구동/신도시/10층	신안동	연립	634/185	11958000만	5945800만	대/연립/신도시/신도시
신안동	63/105	3942200만	2948000만	3층/12/구/신도시/신도시	지석동	47.4	3980000만	2945200만	트/신도시/14층	원곡동	연립	1247/641	79765만	3947000만	연/신도시/신도시
지석동	85/118	3945300만	2947700만	3층/18/구/신도시/신도시	호정동	12.2	5500만	2464만	금/보/신도시/12층	용동	연립	1565/689	23921000만	139	연/신도시/신도시
학동	82/33	4995400만	3947700만	3층/18/구/신도시/신도시	지석동	24.1	1950000만	6720만	그/신도시/3층	연안동	연립	1292/706	12924000만	5948300만	금/보/신도시/신도시
우산동	74/89	2946400만	1948480만	3층/15/구/신도시/신도시	월곡동	13.7	8600만	3090만	동/신도시	용동	연립	503/412	9283000만	6977600만	연/신도시/신도시